

「2021-2 인권의 장소」

담당교수: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담당조교: 박혜인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강의시간: 수 7,8,9

강의실: 비대면 ZOOM 회의실

□ 수업 목표 및 개요

① 수업목표 및 개요

이 수업은 연세대 고등교육혁신원의 특별정책교양과목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혁신 활동에 관심있는 학생들 혹은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는 인권이다. <인권의 장소>는 인권을 둘러싼 상징적 사건이 발생한 특정한 지리적 장소일 수도 있고 일상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보편적 공간일 수도 있다. <인권의 장소>는 개설 학기 마다 공통의 주제 장소를 설정하여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인권 문제의 구체적 장면을 포착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한다. 그리고 탐색하고 모색한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문화적 실험들을 전개한다. <인권의 장소>는 이러한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물이 축적되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인권의 장소 맵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인권의 장소임을 환기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이 수업이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키워드는 장소, 내러티브, 기억, 기록이다.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권의 현장을 스스로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중요한 인권 이슈가 무엇이고, 그 이슈를 대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선정한 후 현장을 탐방, 관찰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기록하면서 서사적 글쓰기를 연습하게 된다.

② 2021-2 인권의 장소 : 회사

2021년 2학기 인권의 장소는 회사이다. 회사는 노동권, 건강권, 사회권, 재생산권 등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자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는 쟁투의 장소(contested terrain)이다. 일하는 시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도는 회사

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위치, 성별, 인종, 연령, 학력, 지역,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다르다. 이 수업에서는 MZ세대, 청년들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인권의 문제를 다뤄보 고자 한다.

□ 수업진행

넘치는 세대담론 속에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다른 세대에 의해 규정되는 스스로의 모습에 답 답함을 토로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경험의 장이 필요하다. 이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현장의 행위자들을 발굴하고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글쓰기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로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할 것이다.

① 특강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
<직장 내 차별 사례와 판례>

은유 작가
<노동과 공감>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노동있는 민주주의>

이길보라 감독
<글쓰기와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의 방법>

② 현장 관찰과 인터뷰

학생들은 학기초에 논의를 통해 관심있는 인권의 장소 현장을 각자 선정한다. 현장은 특정한 인권 관련 사건이 벌어진 회사/일터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인터뷰이들이 다니는 회사/일터가 될 수도 있다. 여러 학생이 동일 장소를 선택해도 된다. 현장에서의 관찰이 가능한 경우 현장관찰을 1회 이상 수행한다. 인터뷰이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기록한다. 학생들은 현장관찰과 인터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받는다.

③ 글쓰기

학생들은 2주에 한 번씩 글을 쓴다. 한 학기 6번 정도 에세이 글쓰기를 하게 될 것이다. 교수자는 글을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며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 결과물은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의 이슈에 관한 완결된 글 혹은 영상물, 스토리텔링이

있는 시각적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최종 결과물은 학기말에 <인권의 장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게시한다.

주차별 수업계획

LearnUs 참고